

다시 생각해야 할 결핵

김 홍 선

의사신문 편집부국장

결핵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일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후진국에서의 결핵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없이 감염되고 소리없이 숨겨졌으나, 세상이 다 그렇듯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결핵쯤이야 거의 정복 돼가는 맥뭉추는 질병으로 무시(?)당하던 터여서 결핵의 무서움이 세계적 관심사로 재 조명을 받기는 어려울 듯 보였다.

결핵에 관심을 갖은 의료인들, 특히 미국등 선진국에서 수학한 의사들은 그들 나라의 의학 교과서에서 한때 결핵관련 교과목이 사라졌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몇 년에 한번씩 만나게 될까 말까한 점도 이해가 가기는 한다.

아이러니컬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결핵의 치료와 연구, 교육에 있어 세계 최선진국가가 되었다.

선진 여러 나라는 「결핵은 이미 정복된 병」이라는 착각으로 결핵의 근본퇴치를 위한 연구에 무심했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후진국들은 결핵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여건, 혹은 끊임없는 정변 등으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10대 사인중의 하나로 결핵이 포함돼 있고 의학수준도 선진화 된데다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여러 요인이 작용, 결핵 대처에 관한 한 어느 나라도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게된 셈이다.

작년 초에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이 WHO 협력 연구기관으로 지정된바 있거니와 그 이전에도 연간 몇 차례씩 아시아, 아프리카등 여러 나라 결핵요원들을 불러들여 결핵교육을 해왔고 많은 결핵관련 연구실적을 올려온 것도 사실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잊혀져가던 결핵,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소위 엘리트 엄마들은 흥터가 남는다고 아이들의 BCG접종마저 기피하던 결핵이 새로이 각광(?) 받게 된 이유는 순전히 에이즈 때문이라 해도 잘못된 생

각은 아닐 것 같다. 치료방법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채 「인류의 天刑」으로 대두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가 결핵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결핵이 지상 최대의 전염병으로 다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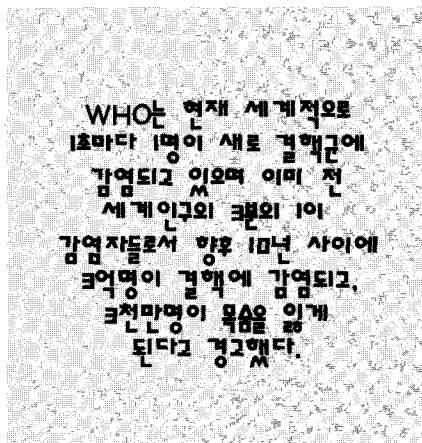
WHO가 지난해 10월에 경고한 결핵의 위해성은 가히 결핵에 대한 공포감을 유발 시킬만하다.

WHO는 지난 94년 전 세계 HIV의 양성 반응자 1천 4백만명 가운데 5~6백만명 정도가 결핵에도 감염됐다는 사실과 함께 금세기말까지 매년 결핵환자중 1백 40만명이 HIV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WHO는 또 결핵이 에이즈환자 사망의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HIV가 빠르게 번지고있는 아시아 일부 지역의 경우 에이즈환자의 50~70%가 높은 결핵 감염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WHO는 현재 세계적으로 1초마다 1명이 새로 결핵균에 감염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자들로서 향후 10년 사이에 3억명이 결핵에 감염되고, 이중 9천만명의 병세가 악화되며 3천만명이 목숨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민과 관광 등 외국과의 빈번한 왕래로 다시 결핵환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40년동안 지속적으로 줄어왔던 동 유럽 국가에서도 결핵사망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고 경고하고있다.

이쯤 되면 그동안 경시돼왔던 결핵의



대 반격이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엘리트 엄마들도 예방접종의 흉터자국을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선진국들조차도 의학 교과서에 결핵분야를 새로 記述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 결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나라에서는 「결코 결핵을 경시하지 않았던」 우수한 결핵 전문가들이 있고 「결핵협회」라는 잘 조직된 단체가 있다.

다만, 결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문제이다. 「결핵은 무섭지만 나오는 무관한 병」정도로만 생각 한다면, 결핵의 무서움에 새롭게 눈떠 호떡집에 불난꼴이 된 선진 다른 나라보다 결핵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언론이나 국민들 모두 WHO의 거듭되는, 그리고 점점 무서워지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